

## 도덕성 회복과 가족 문제

이 광규(서울대 인류학과)

### I. 머리말

근대 한국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경험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세기도 안되는 단시일내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사회적 대전환을 이룩하였다. 해방 당시 우리의 농촌과 도시 인구의 비례는 7 대 3이었다. 그러나 1986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2 대 8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사회 변동이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산업 체계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유래하는 개인들의 도덕률(道德律)·가치관(價值觀)·윤리 의식(倫理意識)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제 시대(日帝時代)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식민지사관(殖民地史觀)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 해방에 이어 서구 문화(西歐文化)의 맹목적 수용과 산업화로 인하여 편입된 세계 체계에 편승한 국제 문화는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혼란과 탁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정신을 가다듬어 새롭고 올바른 도덕(道德)과 윤리(倫理) 체계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론을 정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으로 가족을 문제시하겠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동양 사회에서 가족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인간의 문제, 도덕·윤리의 문제를 언급할 때 가족은 핵심적 영역이 된다.

우리 나라의 도덕성을 문제시하면서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도덕성 정립을 위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의 가족과 도덕률을 보고, 둘째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를 보면, 셋째로 현대 가족의 사회 구조와 도덕률을 보기로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국제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도덕률을 보기로 한다.

## II. 전통 사회의 가족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는 이대 지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도작 농업(稻作農業)이라는 생산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儒敎)라는 사상 체계(思想體系)이다.

벼농사는 모내기와 추수시 단시일내에 많은 노동력을 투하해야 하는 농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수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되어 가족이 합쳐서 두레라는 집단을 이루고 농사에 협력을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고, 우리나라의 농업은 가내 노동력(家內勞動力)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들은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단위일 뿐만이 아니라 의·식·주를 관장하는 생활의 단위였다. 가족은 가족원이 생활할 주택을 가져야 한다. 가족을 흔히 집이라 하며, 집이라는 개념에는 가족 구성원 이외에 건물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가족에는 건물과 생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의복을 전적으로 가내에서 생산하였다. 목화를 심고 이것에서 실을 뽑아 길쌈을 하는 것은 모두 집안에서 여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드는 것, 세탁하는 것 모두가 가사 노동에

속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의생활을 완전히 가내 작업에 의존하였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식생활의 단위였다. 벼농사를 짓는 것은 가족원의 주식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식 이외의 부식도 모두 집의 텃밭에서 생산하여 식생활의 자급 자족이 가능하였다. 집에서 생산하지 않아 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생선과 육류뿐이었다. 육류의 경우에도 집에서 닭을 키워 달걀과 고기를 먹었다.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가족에 소속되어야만 했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도모하였다. 이를테면 모든 개인은 가족에 소속되고, 가족이 가지런할 때 사회가 안전하며, 사회가 안전할 때 국가가 무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족관(家族觀)은 유교(儒教)를 국시로 하는 조선조(朝鮮朝)의 사회 사상이었다.

조선조는 가족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의 의례를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개인이 행해야 할 의례를 가족의 의례로 하여 가족을 의례 집단으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실천 윤리인 가례(家禮)를 개인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가례를 몸에 익혀 가례를 정확하게 실천함으로써 교양의 정도를 표시하였다.

가례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4례(四禮)를 말하며, 4례는 말하자면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경과해야 하는 마디마디에 개인의 성장을 축하하는 의례(儀禮)로서 가족의 범위보다 넓은 사회가 행하는 의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족 내에서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례라고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혼·상·제 중에서도 연하자인 비속을 중심으로 한 의례인 관례(冠禮)와 혼례(婚禮)보다 웃대인 존속을 위한 의례인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더 중요한 의례로 여겼다.

상례는 직계 존속의 죽임에 임하여 행하는 의례를 유교가 강조하는 효행(孝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상례는 예 가운데 으뜸이 되며, 부모의 상(喪)을 당한 자녀는 물론 동고조 팔촌(同高祖八寸)의 범위가 5복제도(五服制度)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고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의례이다.

제례(祭禮)는 상례의 길제(吉祭)에 이어 행해지는 의례이며, 조상의 영혼을 받드는 의례이다. 제례는 상례의 연장으로서 조상에 대한 효 사상(孝思想)을 표현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신(神)으로 하고 종손(宗孫)을 제관(祭官)으로 하는 종교이다. 제례를 통하여 우리는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경제 단위이고 의·식·주를 포함하는 생활의 단위인 동시에 4례를 행하는 의례 집단이고, 구성원을 교화하는 교육 집단이며, 조상 제사를 행하는 종교 집단이었다.

### III. 가부장제 가족 도덕률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는 가족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가부장제 가족을 장려하였다. 가부장제 가족이란 가족을 통솔하는 권한이 가장인 부(父)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가장은 최고 세대의 남자이기 때문에 2세대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3세대 가족에서는 조부가 된다.

가부장권은 가족원의 의사를 외부에 대표하는 대표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가장은 가족들의 모임인 마을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문중 등 친족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가부장권은 가족 구성원을 지휘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을 포함한다. 가부장권은 가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가족원의 업무를 나누어주고 원만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특히 가장은 가족원의 사회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족원을 교육시키고 지도해야 한다.

가장은 가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의·식·주에 책임지고 가족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가장의 경제권이라 하겠다. 가장은 가족원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장의 재산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가장은 가부장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와 함께 권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원과 다른 생활 공간을 갖는다. 이를테면 가장은 사랑방에 기거하면서 식사에서도 독상을 받고 복장도 갖추어 권위있는 행동을 한다.

가족원은 가부장권에 순종함으로써 개인보다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배운다. 가족원이 가부장권에 복종하는 것은 가부장권으로 상징되는 초유기체로서의 가족에 순종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가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으로서의 가장은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혈연적 유대로서 정당성을 확인하고 다시 조상 숭배인 제례(祭禮)를 거행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한다. 말하자면 가장권은 조상에서 유래되는 시간적 연속상에 존재하는 가족을 상징하는 것이며, 가장권은 가족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연속성의 명제를 구현하는 상징이다. 이것을 가족의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따라서 가족원의 일차적 의무는 가장인 부(父)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가족원 중에서도 집을 계승할 아들,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가장의 후계자로서 사람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자면 생명을 준 은인이고, 자기를 길러준 은인이며, 재산을 주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이고, 자기에게 사회적 신분을 물려 준 사람이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여 예컨대 아버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고, 술도 맘대로 마시지 못하며, 밥상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문의 출입시 길을 양보하고 보행시 뒤에 서며, 앉을 때 아버지보다 높이 앉지 않으며, 누워있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일어나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언어에서도 자녀는 부(父)에게 최대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언행은 모든 대인 관계의 기반이 되는 행위 유형인데, 이곳에는 가족과 사회의 도덕률이 함축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녀의 부(父)에 대한 행위 유형은 도덕률의 표현이다.

가족원 사이의 대인 관계는 부자 관계를 기준으로 이것을 약화시킨 것이다. 예컨대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보다 유연하여 행동이 보다 자유롭고 언어도 친밀하다. 형제간에는 비록 연령의 차이는 있다 하여도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우가 형에 대하는 태도는 더욱 완화된다. 그러나 아우는 형에 비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에 대해 존대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 내의 연령과 세대의 상하에 의한 질서를 흔히 장유 유서(長幼有序)라 한다.

한편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부권자(主婦權者)인 어머니보다 가장(家長)인 아버지를 높이고, 가장인 남자가 소유한 권리·의무가 있고, 주부인 여자가 갖는 권리·의무가 있다. 이것은 상호보완적이며, 권리의 담당 영역이 분명하다. 가내(家內)의 남녀 분업은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 어린이는 남자로서의 행위를 익히기 위해, 그리고 여자 어린이는 여자로서의 언행과 가사를 익히기 위해 남녀 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가족 윤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 유형을 남녀 유별(男女有別)이라 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는 남녀 유별과 장유 유서라는 행위 규범과 윤리 체계에 의해 가정 내에서 언행을 학습하였다. 웃사람인 어른에게 존대말을 사용하고 태도와 행위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순종의 도(順從之道)를 배우는 것이다.

한편 형제들이 섞여 놀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전통 가족은 사람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가르쳤다. 이것은 조화의 도(調和之道)라 하겠다.

전통 가족은 사람들에게 행위나 사고에 지나침이 없이 매사에 신중할 것을 가르친다. 이것을 중용의 도(中庸之道)라 하겠다.

순종의 도와 조화의 도 및 중용의 도는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가 강조하는 도덕률이라 하겠다. 이러한 도덕률은 유교가 강조하는 효(孝)·신(信)·의(義)의 구체적 행동 윤리라 하겠다.

효는 전통 사회가 강조한 도덕 윤리의 기본이고 백행(百行)의 근원이다.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는 규범이며, 차원낮은 행동으로부터 차원높은 의

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단정히하는 것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효행이 된다.

신용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행한 언행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더 없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의 또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가리어 이것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됨에 필요한 주요 덕목이 된다. 전통 사회가 강조한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이러한 3개의 덕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여자는 한 남자를 섬기되 절개를 지켜 열녀가 되고, 남자는 집 안에서 부모를 섬겨 효행을 다하며 사회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되 충(忠)으로써 신의를 다하였다.

충효와 신의는 말하자면 그 근원이 되는 은혜 사상(恩惠思想)의 발로이다. 즉 충신·효자·열녀는 은혜에 보답하는 실천자이다. 충신은 나라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고, 효자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열녀는 남편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다.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한이 없다. 이를테면 자기에게 생명을 주어 길러주었고 사람되게 교육 시킨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 효행이지만, 효는 아무리 해도 끝없다.

가족 내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언행에서 효도를 다하지만, 가례(家禮)인 제례(祭禮)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먼 조상에까지 확대하고, 현조(顯祖)에게 자기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가족들이 모인 마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가족의 확대였다. 이웃 노인은 말하자면 바로 자기의 노인이고, 형의 친구는 바로 형이 된다. 따라서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면식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족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한편 마을은 두레와 품앗이를 공동으로 행하는 생산 공동체였고, 한 마을의 수호신에게 보호받는 신앙 공동체였다. 무엇보다 마을은 전체 구성원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는 운명 공동체였다.

이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핵심이 되어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며, 이것이 공간적으로 확대된 지역 공동체에 의해 다시 강화되고 조상 숭배를 통하여 시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 공동체라는 횡의 망과 조상을 통한 혈연 공동체의 종의 창에 연결되어 탄탄한 망사 위에 존재하였다.

#### IV. 현대 가족의 형태와 기능

우리 나라는 현대에 진입하면서 많은 수난과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는 36년 간 식민지를 경험하고 해방과 건국을 맞이한 데 이어 6. 25사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후(戰後) 베이비붐을 타고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본다. 해방 당시 우리의 인구는 남한의 경우 2천만 명이었다. 이것이 1986년에는 4천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말하자면 약 4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증가한 셈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때문에 국내 생산력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공업화를 서둘렀다.

공업화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테면 공업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가치로운 것으로 되어 배금 사상이 만행하게 되었고, 기술을 위한 교육이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산업 사회는 무엇보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양보와 태협을 미덕으로 하던 가치관이 화폐와 경쟁을 미덕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었다.

전통 사회의 가족과 관련지어 보다 중요한 것이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라 하겠다. 도시에 산업체가 서고 공장 지대가 형성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단시일내에 홍수처럼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향도 이농(向都離農)의 결과 도시의 젊은이들은 고향의 도덕적 영향권에

서 벗어나 행동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도시의 밀집된 생활 환경에서 지켜야 할 공동체 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 자체가 변하고 현대 가족이 출현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른바 현대 가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형태적 특성을 갖는다.

현대 가족은 소인수 가족화(小人數家族化)의 경향이 있다. 현대 가족을 도시 가족으로 가상할 때 현대 가족은 자녀를 적게 두려고 한다. 전통적 농경 사회에서 자녀는 생산 수단화할 수 있는 생산 인구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는 완전히 종속 인구가 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고 부모에게 종속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대 가족은 자녀를 적게 두려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대 가족은 가족원의 수가 적은 소가족이 되게 마련이다.

현대 가족의 둘째 특성은 가족이 핵가족화되는 경향이다. 현대 가족은 생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통적인 3세대 직계 가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는 전통적 생활 양식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만의 자유로운 생활 공간을 원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시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경향은 3세대가 동거할 경우 오히려 부자유스럽게 느끼고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시부모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3세대 동거를 거부하는 것이 부모 세대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인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현대 가족의 셋째 특성은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다. 현대 가족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도시에서 보이듯이 아파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물리적 이웃은 많아졌다. 그러나 도시의 이웃집은 왕래가 없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대 가족은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겠다.

현대 가족에서 보다 크게 변한 것은 가족의 기능이라 하겠다. 전통 가족에서는 가족이 앞서 보았듯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통 가족은 의·식·주을 자급자족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생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통 가족은 강한 가부장권하에서 윤리 도덕을 배우는 교육의 기능을 하였다. 전통 가족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노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능이 현대 가족에서 크게 위축되고 약화되었다.

경제적 기능을 보아도 현대 가족은 소비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가계에 필요한 수입은 전적으로 가장인 남자 1인에게만 의존한다.

현대 가족에서 크게 변한 영역이 의·식·주의 기능이다. 집에서 옷감을 짜거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 남녀 노소의 모든 의복이 기성복이어서 현대 가족이 갖는 의생활에서는 세탁만이 남았고, 이것도 세탁기를 사용하여 의생활은 거의 완전할 정도로 양복점·백화점·의류상·세탁소 등 사회의 제2차 집단에게 기능을 빼앗겼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 농촌 가정에서마저 텃밭을 일구는 사람이 없이 식품의 구입을 완전히 시장에 의존한다. 식생활에서도 제2차 집단들은 각종 식품을 발달시켜 간단하고 편리한 식품인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하였다. 한편 가사 도구의 전기 제품화로 부엌살림이 간편해지고 사치 풍화하게 되었다. 식생활을 담당하던 주부는 취사로 인하여 빼앗기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식·주 생활에서 편리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주생활이다.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하던 주거 생활이 많은 가제 도구를 포함하여 의자 생활·침대 생활로 변하면서 생활이 안락하게 되었고, 청소 도구가 발달하여 주거 생활이 편리하게 되었다.

현대 가족에서 기능이 약화된 영역은 자녀 교육 분야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에 필요한 예의 범절과 도덕 윤리를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기관이 발달하여 자녀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시키고 가정은 도의 교육과 예절만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나, 이것마저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대 가정에서 약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 기능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제사를 통하여 종교적 의례를 행하고 제사를 통하여 도덕 윤리의 교육을 겸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고, 집안에서 제사를 행하되 제사의 의미가 전통 사회와는 달리 구습의 잔재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부가 담당하던 가신 숭배(家神崇拜)는 미신으로 전락해 버렸다.

현대 가족에서 약화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종속 인구의 부양이다. 소인수 가족화한 현대 가족은 종속 인구화한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산업 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사회 전반에 경노 사상이 퇴조하였고, 이것이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가족은 전통 사회에서 가졌던 많은 기능을 제2차 집단에게 양보하고 약화된 기능만을 수행하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러 증가된 기능이 있다. 이것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한다. 직장에서 같은 계에 근무하는 동료가 바로 승진의 경쟁자가 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긴장해야 한다. 한편 집을 한 발자국만 나가도 소음, 복잡한 교통, 수많은 자동차 등 복잡하여 길을 걸어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경쟁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이 편히 쉴 곳은 가정이다. 현대 가족은 가족원의 정서적 안정을 희구하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V. 현대 가족의 사회 구조

현대 가족에서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역할 구조도 변화하였고, 가족원 사이의 대인 관계도 변화하였으며, 상대방을 인식하는 의식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역할·대인 관계·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곳에서는 가족원 사이에서도 부부 관계

와 부모-자녀 관계에 한정하여 이것을 전통 가족과 현대 가족을 대비하면서 보기로 한다.

현대 가족에서 크게 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부의 역할 구조이다. 부부는 가사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이것 이 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성별 분업이라고도 한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 가족의 부부에서 가사의 분담 영역이 분명하였고, 남녀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으로써 가사가 원만히 운영되었다. 이것을 가사의 자동적 운영이라 한다.

부부의 유별 말하자면 남녀 유별의 원리에 따라 남자는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구한다. 이를테면 가사를 처리하는 데, 가장권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은 각기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같다. 전통 사회에서 여자는 시댁 관계를 의논할 친구가 있었고, 자녀 양육에 자문을 구할 사람이 별도로 있었으며, 자기 건강과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할 친구가 별도로 있었다. 따라서 전통 가정의 부부는 마치 낙지처럼 여러 자리를 갖고, 부부 관계는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 부부는 절개와 의리만 지키면 되었다.

전통 가정에서 부부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절개와 의리라는 윤리만 지키면 되었다. 여자는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의리로서의 절개를 지켰고, 남자는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의리를 지켰다. 이것은 유교 윤리가 강조하는 신의를 부부 사이에 지키는 윤리인 것이다.

전통 가족에서는 부부의 역할 분담과 윤리 의식 이외에 우주관에 입각한 사상이 있었다. 이를테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규범 의식이 있었다. 이것은 대립 개념으로서의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늘은 땅을 감싸고 보호하며 땅은 하늘을 우러러 받든다는 의미에서 조화로운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 사회의 부부는 독자적 역할 관계와 상호보완적 윤리 의식 그리고 조화로운 규범 의식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 가족에서 크게 변한 것이 부부의 역할 분담이다. 앞서 보았듯이 남자들은 수입원을 전담하게 되어 오로지 직장에만 종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남자의 직장 전념화 경향이라 하겠다. 남자의 직장이 변화가에 있고 옆에 은행이 있어도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 전통 사회에서 남자가 출입하던 관청·시장·은행·학교 등 집 밖의 활동 영역에서 남자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전통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자가 담당하였으나, 남자가 이것을 할 시간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집안의 모든 일과 집 밖에서도 가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여자가 담당하게 된다. 이것을 현대 가족 주부의 가사 전담화 경향이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주부는 관청 출입·물품 구입·은행 출입 등을 하며, 심지어 재산 관리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현대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였는데, 이에 부합되는 윤리 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부부 사이의 윤리 의식인 의리가 현대 가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예컨대 현대 가정에서 부부가 가치관이나 취미 생활 또는 이상 등이 맞지 않아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 오로지 체면과 의리로 동거를 계속할 경우, 그것은 오히려 비참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다. 현대 가족에서는 부부가 필요에 의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

새로운 사항과 조건에 대하여 부부의 성장 배경·출신 기반·교육 정도 등 객관적 조건과 새로운 사항을 감지하는 속도, 그리고 새로운 사항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특히 남자들은 새로운 역할 분담으로 여자에게 감사하고 여자가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나, 이것이 남자의 자존심에 손상이 된다고 사료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현대 가족에서 문제는 부부의 새로운 윤리 의식에서만이 아니라 규범 의식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대 가족에서는 부부가 평등한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전통 가족의 수직적 천지 의식(天地意識)과 전혀 반대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이다. 근년으로 올수록 여자들 중에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개인적 요구와, 고등 교육을 받고 여자라는 조건으로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에 손실이라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직장을 갖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에 같이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같이 퇴근하기에 다시 가족 내의 역할 분담이 달라져야 한다. 이럴 경우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녀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사에 필요한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중복적 역할이라 한다.

이럴 경우 남자가 먼저 집에 돌아오면 남자가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여자가 먼저 집에 돌아오면 여자가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여자가 식사 준비를 하면, 남자는 세탁을 하고 장보기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자의 일이나 남자의 역할 등의 구분이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맞벌이 부부들은 이러한 새로운 생활 태도와 이에 따르는 남녀의 윤리 의식과 규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남자들이 전통적 규범 의식을 고수하려고 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 사고를 가진 중년 이상의 주부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가사에 충실하려 한다. 직장과 가사에서 충실하려는 여자를 슈퍼 우먼이라 한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한국적 현상의 하나라 하겠다.

현대 가족에서 부부 관계보다 심원한 변화를 야기한 것이 부모-자녀 관계라 하겠다. 전통 가족의 경우 특히 부자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관계였다.

전통 사회라 하여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귀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야 했으며, 특히 사람되게 하기 위하여 도덕 윤리를 가르쳐야 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모는 엄하게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 가족에서는 가족이 자녀의 기술 교육을 전수시킬 수 없으며,

도의 교육을 담당하던 아버지는 직장 전념화 경향으로 인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도의 교육·윤리 교육에는 무엇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 현대 가족에서 아버지는 권위를 유지할 공간이 없다. 권위없는 아버지의 말은 자녀에게 잔소리에 불과하다.

현대 가족에서 자녀의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다. 현대 사회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육아 양식을 전수하지 못하고, 서구식 육아 양식도 모르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젖먹이로부터 철이 날 때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어린이를 양육하지만, 잔심부름을 통하여 가족과 친족 관계를 알게 하고 철이 나면서부터는 존대말을 가르쳐 상하 관계를 체질화하게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철이 난 후 아버지가 도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대 가족에서 어머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린이를 기른다. 이 때 책임지는 것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을 동시에 주입시켜야 한다. 어린이의 육체가 성장하듯, 어린이의 의식과 정서는 성장해 간다. 이러한 시기에 어른으로부터의 적절한 교시가 있어야 하고, 상별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예컨대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서구 가정에서의 육아 양식은 엄격하다. 자녀가 처음부터 독립된 공간을 갖게 한다. 부모의 뜻에 따라 시간제로 젖을 먹이지, 우리 나라처럼 어린이가 운다고 젖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린이는 저녁 9시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야 한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울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냉혹하여 어린이의 요구를 거절하고 침대에 들게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세계가 있고 규칙이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린이에게 가하는 벌은 냉엄하다. 이러한 육아 양식이 있은 후, 개인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서구 문화를 수입하면서 이런 기초적 영역을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대 가족에서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기 때문에 자녀를 더욱 귀여워한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생각

을 갖게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없다. 현대 가족에서 아들은 모두 외아들의 성격을 갖고, 딸은 무남독녀의 성격을 가지며, 타인과 더불어 양보하고 타협하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가족 내의 인간 관계에는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의 두 관계만 있지는 않다.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하고, 3대가 동거할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도 중요하다.

전통 가족에서 부자 관계 못지 않게 중요시한 것이 형제 관계이다. 형제는 같은 항열에 속하고 부모를 공유하기 때문에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따라서 형제는 천륜에 따르는 우애가 있어야 했다. 그 위에 형제는 연령에 따르는 상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형제 관계가 현대 가족에서 평등과 자유라 하여 형의 권위를 인정치 않아 형제간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질투가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도 근년에는 자녀 수의 감소로 볼 수 없고, 집안에 혼자밖에 없는 자녀는 부모의 만류로 밖에 나가 친구하고 놀 수 없는 고독한 환경을 갖는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상대는 완구같은 물질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대 가족의 어린이는 정서가 불안하고 고독한 성격을 갖는다.

조부모와 3대가 동거하는 집이 감소되었으며, 조부모와 동거한다 하더라도 교육받은 어머니가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대화나 왕래를 단절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놓고도 귀여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 가족의 사회 구조는 역할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식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되어 역할 구조와 의식 구조 사이의 괴리 현상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통적 윤리 의식과 규범 의식은 없어지고, 이에 대처되는 새로운 윤리 의식과 규범 의식이 성립되지 못하여 현대 사회의 가족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

## VI. 현대 가족의 제 문제

현대 가족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부부 문제이다. 부부간의 문제라 할 때 쉽게 연상되는 것이 이혼 문제이다. 최근 정신분석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병적인 부인 구타 행위가 있다고 한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소박·별거·이혼이라는 몇 가지 관계가 있으나,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의 원인이다.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의 원인은 부부의 성격이 맞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이혼 이유의 표현이 아니다. 말하자면 현대 가족에서 이혼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앞서 기능의 변화에서 언급한 것과 현대 가족에서 강조되는 정서적 안정에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때 가족원 사이에는 불만이 누적되고, 이것이 폭발할 경우 이혼이 되며, 오랜 시간을 두고 누적된 불만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의 이유가 불분명하게 된다.

현대 가족의 이혼 사유 가운데 분명한 것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이다. 부부가 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가족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인격적 손상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부부간의 윤리 문제가 된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데는 언어와 태도도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혼과도 관련되고 특히 부인 구타와도 관련되는 것은 남자들의 부인에 대한 열등 의식이다. 남자가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열등 의식을 느꼈을 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집안에서 화풀이한다. 무엇보다 남자가 능력이나 활동 또는 인성됨이 여자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때 이것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택하게 된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일본 문화에서 배워 온 일제의 잔재이다. 따

라서 전통 가족에서도 더러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가족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가부장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고 육체적 학대에 불과하였다.

현대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육체적 학대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구타하는 방법도 잔인하고 지능적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식이 높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엘리트층에 부인 구타가 많다고 한다. 부인 구타는 따라서 근년에는 정신질환자의 행위로 취급한다.

현대 가족에서 이혼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다. 말하자면 혼수가 부부 간의 시비가 되고, 이것이 발달하여 이혼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천적인 서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며 사고이다. 서양의 경우 젊은 부부는 으례 가난하고 소박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혼수라는 것 자체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에서도 여자가 시집와서 자기 집 문지방을 넘기 전에는 왈가왈부하지만, 문지방을 넘어서면 자기 식구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신부가 해온 혼수나 예단 등을 볼 때 전통 사회에서는 애교스럽게 보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였다.

현대 가족에서 물질로 이혼의 이유를 삼는 것은 부인보다 물질을 보고 혼인한 것이 되며, 이것 이상 부인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된다. 무엇보다 과거의 일을 들추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물질을 이혼의 이유로 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 중에서 으뜸이 된다.

부부 관계 못지 않게 현대 가족의 문제에서 심각한 것이 자녀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가족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어떤 유형의 인간을 기르겠다는 목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야기된다.

한편 거리와 상가 특히 유홍가의 무분별한 선전물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을 악으로 유혹한다. 또한 안방에까지 침투한 텔레비전을 통한

사회상은 청소년을 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지식을 보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청소년의 도덕 윤리를 포함한 전인 교육을 등한히하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건전한 청소년이 성장하기 어렵다. 최근에 들어 청소년의 비행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으로 지적되는 것이 폭력·절도·가출·혼숙·음주·흡연 등이다.

폭력과 절도는 전통 사회의 청소년에게도 있어 왔다. 짚은 사람이 흔히 힘겨루기를 하고 어린이가 일시적 충동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의 경우 폭력배가 조직되고 폭력배간의 싸움이 치열하고 잔인해지는 데 있다. 이것이 어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다.

절도의 경우 간단한 문방구나 소지품을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액 고가품을 계획적으로 훔치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절도도 조직화하고 절도의 목적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절도가 폭력처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가출은 전통 사회에서 친구의 집에 가서 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여관에 머물거나 장기간에 걸쳐 멀리 가출하여 가족과 부모의 보호를 거절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서의 가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으로 인하여 절도를 해야 한다는 연쇄반응적 범행이 문제가 된다.

가출이 반드시 혼숙과 일치되지는 않지만, 가출 청소년들이 공동 범행을 자행하고 공범자가 이성일 때 쉽게 혼숙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혼숙이 문제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전에 성의 자유를 누린 결과 특히 여자의 경우 진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

음주와 흡연이 가출이나 혼숙보다 가볍다고 하지만, 사회가 금지하는 행위를 청소년이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근년에 이르러 음주와 흡연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내려가고 여자에게도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고, 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정은 청소년의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제도가 아무리 발달하고 학교 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도 지식을 소화하게 하고 확고한 도덕률을 갖게 하고 정당한 윤리 체계를 몸에 익히게 하는 전인 교육은 역시 가정이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가족의 부모는 어린 시절 자녀를 과보호하는 것만 알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닥치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성숙을 알지 못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러한 변화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선도하지 못한다.

청소년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에게는 전통적 문화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 처리로만 해결하려는 데 있다. 이것을 문화의 문제라고 했듯이 청소년 문제에 한하지는 않지만, 특히 청소년 문제는 예방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유리한 영역인데, 이것을 사후 처리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번 낙인찍힌 비행자에 대하여 사회는 인색하고 관용적이지 못한 것이 청소년 비행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에 노출된 비행보다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인성적 특징에 문제가 있다. 현대 가족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과보호받고 성장한 오늘의 청소년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도 모르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줄도 모른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타인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며, 타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산업 사회로 진입하여 무서운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의 대상과 무대가 국내에 한하지 않고 국제 무대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는 인내심있고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기의 인격을 존경받는 시민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이 배출하는 인성은 시대적 요구와 너무도 다르다.

현대 가족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인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 문제가 없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중요시하여 노인을 보호하였고, 효를 기반으로 하는 경노 사상이 있어 노인을 존경하였으며,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노인들은 소중한 존재였다.

노인 문제는 소인수 가족화한 현대 가족이 생산 인구에서 종속 인구로 화한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한 것과, 젊은 부부가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대 가족은 생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기가 어렵다. 공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부부의 수입이 종속 인구를 부양하기에 힘겹다. 노인들에게는 생활비 이외에도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과 특히 건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겠다는 생각의 문제이다. 자기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금전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대인이라 하겠다.

어떤 이유에서건 현대 가족이 종속 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는 사회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대 국가는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개인이 미리 노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상 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인들이 젊었을 때에 아직 사회에는 보험제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저축할 여유도 없었다. 오로지 가족과 자녀를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정년이 되고 종속 인구가 되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효를 강조하면서 노인 문제를 능력없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수행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노인 문제만은 아니다. 정신질환자나 신체장애자를 국가가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족에게 의존한다. 소년소녀 가장의 가족도 미혼모 가족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현대 가족은 전체적으로 기능의 약화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개성과 자

유·평등이라는 개인주의적 의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원심력만 강화되어 이기적 가족이 되었다.

## VII. 현대 가족의 도덕성 재정립

우리 사회는 공업 사회로 진입해서 산업 재해 등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다시 농업 사회로 환원될 수 없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윤리 도덕면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한다고 하지만 농경 사회에서 가졌던 윤리 도덕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조건에 부합되는 도덕성을 정립하고, 오히려 미래지향적 윤리 도덕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가족으로 한정하여 도덕성 재정립을 위한 시론을 펴기로 하자.

현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이다. 현대 가족을 핵가족이라 하거나 부부 가족이라 하는 것은 현대 가족이 부부 중심 가족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대 가족이 소인수 가족화하고 핵가족화한다는 것은 부부가 부부 이외의 친족이나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부부만의 세계를 갖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현대 가족은 부부만이 부부만을 위한 가족으로 되려는 성향을 갖는다.

현대 가족의 부부에게는 따라서 가족을 형성하는 가족의 목적이 전통 가족과는 달라야 한다. 전통 가족은 조상으로부터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미래에까지 지속될 가족의 연속을 위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현대 가족은 가족의 지속보다 부부의 행복에 초점이 있다.

현대 가족의 부부는 인격체의 결합이어야 하며, 그 결합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격체는 완성되지 않아 각기 단점과 장점을 갖고 있다. 부부란 자기의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보완하여 완성으로 향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부부가 이러한 생각으로 결합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을 상호 존중 의식이라 하겠다.

상호 존중 의식에서 유래하는 도덕적 덕목은 언어에서 상대방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대어를 쓰는 데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존대어를 쓰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남자가 여자에게 존대어를 쓰는 것은 전무한 사항이다. 따라서 남자들이 부인에게 존대어를 쓰는 관습을 만들어야 한다. 언어 이외에도 태도나 행위에서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특히 상류 계급에서 부인을 소개할 때 “6례(六禮)를 치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혼례(婚禮)를 치른 사람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부인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부인을 대하되 언제나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인을 손님처럼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상호 존중 의식을 갖는 부부 관계는 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부부 관계를 계약이라 할 때 자칫하면 가족도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이익 집단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부 관계를 계약이라 한 것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부부 관계를 맺되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이룬다는 의미에서 계약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생겨야 하고, 부부가 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였으나 부부가 된 다음에는 장점만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계약이란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통 사회의 도덕률은 친구간의 신의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간의 도덕률로 되어야 한다. 신의는 상대방을 믿는 것이다.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로 여기고 그 인격을 믿는 것이 된다. 부부간의 신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신뢰만이 아니라 생활의 전 영역과 인간 관계에 앞서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기에 전인적 신뢰라고 하겠다.

신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는 예의라 하겠다. 따라서 부부간에 예의를 지켜야 하며,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될 말, 해서는 안될 행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부부는 최후의 약점까지 노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간의 예의는 부부만의 예의가 아니라 부부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하는 부부의 예의도 포함

하고, 제3자 앞에서 부부가 행하는 예의도 포함한다.

부부간에 신의와 상호 존중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동반자 의식이다. 부부의 동반자 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덕목이다. 가치관과 생활 유형이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은 긴 여정을 통하여 많은 친구를 갖게 되고, 또한 처지·시기·조건 등에 따라 친구들을 바꾸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만큼 길게 사귄 친구가 없으며, 인생의 기복에서 지속된 친구도 없다. 따라서 부부를 생의 동반자라고 한다.

부부가 참다운 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감정을 같아해야 하고 생의 목표가 같아야 하며 가치관이 같아야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서 생활·취미 생활까지 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생활 가치관·취미 생활이 다양한 근대 사회에서 부부는 의도적으로 동반자 의식을 갖기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의 의식을 상대방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반자 의식은 의식 수준의 조절만이 아니라 가사에서의 협조를 포함한다. 현대 가정에서는 성별에 의한 분업이 없어지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고 같이 협조해야 한다.

부부는 비록 현대 가정에서 성별 역할의 분담이 아니라 중복된 역할을 수행해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현대 가정에서의 질서란 상하 관계의 질서가 아니라 대등한 인격자의 질서를 말한다. 대등한 질서란 행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남녀 성별이나 연령의 고하와 같은 생득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의 효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간의 대등한 질서란 상대방에 대한 신의와 상호 존중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을 존경심이라 하겠다. 현대 가족에서 부부간이 으뜸으로 해야 할 도덕률은 존경심을 갖는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연애 결혼이 증가하여 현대 가족의 부부는 생의 동반자로서 가사에 협력하고 취미 생활을 같이하는 부부가 많으나, 현대 가족의 구심력이 약한 것은 부부간의 존경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존경심이 야말로 현대 가족이 가져야 할 차원높은 도덕률이라 하겠다.

현대 가족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양육 문제이다. 자녀는 귀엽고 귀한 존재이지만 미완성품이고,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는 올바른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부모가 고민하는 것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하나 하는 미래 사회의 인간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래 사회는 분명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사회이고, 여론이 사회를 이끄는 대중 사회이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 사회이다. 이곳에 적합한 사람을 흔히 민주 시민이라 한다. 민주 사회의 주인인 민주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는 책임있는 사람을 말한다.

권리·의무를 충실히 시행하는 사람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 평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경쟁 사회에서 바라는 인격이란 타인과 타협을 잘해야 하고, 타협에 의해 일단 결정한 일은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신의를 얻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책임있고 신의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겸손하고 타협할 줄 아는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대 가족은 자녀에 대해 의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가족이 부부 관계를 현대 사회에 부응하게 재정립하고 부모가 자녀를 현대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면, 사회가 동조하거나 가족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까지 사회는 오히려 민주시민 사회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에는 경제제일주의·금권만능주의 등이 팽배하여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을 흐리게 하였다. 국가를 주도하는 엘리트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이것의 준수를 강조해 왔다.

사회와 국가는 현대 가족으로 하여금 올바른 현대 가족을 이룩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실시하게 가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현대 가족에서 부부간의 도덕률로 열거한 덕목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

어야 할 덕목은 존경·겸손·신의 등 유사한 내용이고, 이것은 수직 구조를 갖는 전통 사회에서도 강조되던 도덕률이었다. 말하자면 수직구조적 전통 사회에서나 수평구조적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도덕률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각할 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도덕률이 어떠한 사회 형태에서도 같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도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회 조건에 따라 그것이 활용되었을 뿐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에서 신의·존경·겸손 등은 유교의 원리를 지키려는 상류 사회의 도덕률이었다. 그간 우리는 근대화·산업화의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는 상놈화의 과정을 걸어온 셈이 된다. 우리가 특히 도덕률에서 양반화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주社会의 현대 가족에 있어야 할 도덕률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수평 구조로 전환하면, 우리의 양반적 도덕률은 더 없이 훌륭한 것이 된다.